



인도 腎臟 매매 성행, 빈민촌이 공급처

남부 인도의 한 가난한 마을에서는 신장매매가 성행, 성인이 신장을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찢어지는 듯한 가난 만큼이나 보편화되고 있다고 파이어니어紙가 보도했다.

남부 타밀 나두주의 바르티 나가르 마을은 유명한 신장마을이 돼 성인 주민중 상당수가 이미 신장 둘중 하나를 떼어 팔고 신장 하나만으로 살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 마을 주민들은 가난이 죄가 되어 돈이 필요하면 은행으로 달려가기 보다는 자신의 신장이나 친척의 신장을 팔기 위해 가까운 병원으로 달려간다는 것이다.

마드라스의 한 빈민촌은 신장 하나에 4백70달러씩에 싸게 거래되는 도떼기시장이 되고 있으며 단돈 30달러의 예약금을 받고 예약한 뒤 최종 가격은 신장을 파는 사람이 돈을 얼마나 급하게 필요로 하느냐에 따라 정해진다.

성인은 누구나 예비 신장기증자가 되고 있으며 기증자는 여성들이 더 많은데 이들은 중간상인을 거치기 보다는 병원과 직접 거래하기를 원한다. 남성보다 여성 신장 기증자가 더 많은 것은 신장을 팔고 나면 힘든 일을 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파이

어니어지는 분석했다.

신장 기증자들은 신장이식수술을 할 병원에 따라 혹은 이식받을 사람에 따라 값을 달리 부르고 있는데 고급병원일수록 값이 비싼 것이 일반적.

가끔은 남편들에 의해 신장을 팔도록 강요당하기도 하는 이곳 여성들은 透析이라든지 조직 적응 검사 등의 단어에 익숙하다.

얼마나 많은 주민이 신장을 떼어 팔았는지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인구 8천명의 이 마을 주민중 근 5백 가구가 신장을 팔았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이슬람, AIDS 감염 아내와 이혼 허용 촉구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확산 방지책을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가 최근 쿠웨이트에서 이슬람 의학기구 주최로 열렸다.

3일동안 계속된 이번 제6회 세미나에서는 에이즈 감염 임신부들에게는 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해야한다는 제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집트를 포함한 1백30명 이상의 아랍권 이슬람 학자들과 의사들이 참

석한 이 세미나에서는 건강한 남편에게 에이즈감염 아내와의 이혼을 허락해 줘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泰國 형무소내 특별 AIDS센터 설치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바이러스에 감염된 기결수들이 방콕의 한 형무소에 마련된 특별 에이즈구역에 격리돼 지내고 있다고 한 관계자가 말했다.

에이즈의 병원체인 HIV(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된 약 2백명의 기결수가 클롱프렘 형무소에 신축된 3층짜리 에이즈 센터에 자진해서 들어가 지내고 있다고 형무소의 한 의사가 말했다.

이미 에이즈에 걸린 약 80명의 다른 기결수는 형무소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의사가 말했다.

그는 “다른 기결수들과 떨어져 지내기를 원하는 환자들은 그들이 원할 경우 특별히 마련된 에이즈 구역에서 지낼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다”면서 에이즈 구역은 세탁물과 도구들을 살균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5백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태국에는 마약관련사범으로 48명의 미국인과 45명의 영국인, 37명의 독일인, 25명의 프랑스인, 24명의 호주인, 16명의 이탈리아인, 13명의 스위스인

들을 포함해 2백53명의 서방사람들이 복역하고 있다.

태국에는 HIV에 감염된 사람이 50만명 이상이나 되는 것으로 관계기관에서는 추산하고 있으며 1984년 에이즈가 첫 발견된 이후 1천6백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섹스관광, AIDS 國內外 확산 부채질

독일 보건부는 섹스관광이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를 유발하는 HIV(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의 국내외 확산에 책임이 있다고 경고하면서 섹스관광을 통한 에이즈 감염 위험을 여행자들에게 주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부는 에이즈 확산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성명에서 독일에서 새로 보고되는 HIV 감염 주요 경로로 휴일 여행자들의 섹스관광을 들고 관광객들과 여행사들에 안전한 섹스를 계몽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적극적 에이즈 예방 교육에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독일정부의 에이즈 실태조사는 섹스산업이 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집중돼 있다고 밝히고 태국정부가 방콕의 사창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콘돔사용 홍보활동을 높이 평가했다. [2]